

[**국 제**]

■ **프랑스 대선 사르코지 당선**



승리 축하 대통령 당선자 니콜라 사르코지의 지지자들이 6일 대선 결선투표 발표 후 파리 시내 콩코르드 광장에 모여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반사르코지 시위 폭동진압 경찰이 6일 툴루즈에서 불타는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반(反) 사르코지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 고구려 유적지 박물관 확장·이전

중국이 지난 2004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안(集安)과 환런(桓仁) 등 고구려 유적지 주변 박물관을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 아래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7일 “중국이 작년 12월31일 고구려 관련 유적을 전시하고 있던 지안시 박물관을 폐쇄했으며, 현재 압록강변의 한 부지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물관은 중앙홀에 설치한 안내관에 ‘고구려는 동북지구 문명발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 중국 소수민족과 지방정권의 하나(高句麗是東北地區古代文明發展進程產生過重要影響的中國少數民族與地方政權之一)’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우리 영사관 측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곳이다.

지안시에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을 비롯해서 광개토태왕비와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군총, 환도산성과 고구려 무덤대 등 광양 천도 이전까지의 고구려 유적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안시의 한 관광가이드도 이와 관련, “지안시 정부가 중앙의 지원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새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짜놓고 시정부 신청사 부근에 별도로 부지를 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존의 박물관보다 규모가 커질 새 박물관 주변에는 넓은 연못 연못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박물관이 완공되면 압록강변에 건설되고 있는 고구려 테마파크와 함께 지안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양=연합뉴스

‘성장’ 위주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속화

■ **향후 정책 전망과 과제**

6일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의 니콜라 사르코지가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는 앞으로 ‘성장’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 방항으로 과감한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력한 치안 정책과 이민 정책이 예고되고, 대외 정책에서는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기간 노동 시장 유연화와 감세 정책, 주 35시간 근무제 개편 및 근로시간 연장,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체제 적극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의 자유시장 경제 노선은 전통적인 드골주의와 좌파 지지자들로부터 거부감

실리 지향·美 접근...유럽통합엔 거리두기 ‘복지’ 약화 따른 빈곤층 불만 해소 속제로

을 사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체제에서는 과거 사회당 정권이 도입했던 주 35시간 근무제가 타격적으로 개편돼 시간의 근무가 장려되고 ‘더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 연장은 물론, 국영기업 민영화와 공공 서비스 비용의 축소 등으로 공무원 감축이 추진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르코지의 등장은 프랑스 경제의 경쟁

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지만, 역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약화로 인해 빈곤층을 포함한 불만층층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 요소에 대처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범죄 및 이민 정책과 관련해 사르코지는 강력한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으면서 양질의 노동력은 적극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민자 통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 사르코지는 터키 가입 불가 등 유럽연합(EU) 확대 반대, 유럽

헌법 조약 대신 범위를 축소한 ‘미니 조약’ 체결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민 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되면서 초래된 유럽통합의 위기가 해결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미 관계와 관련해, 사르코지의 친미주의적 노선에 따라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경색됐던 프랑스와 미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정책 자문기관인 프랑스 경제사회이사회인 베르나르 스피츠 위원장은 “복지 문제를 우려하는 프랑스의 입장의 기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프랑스측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연합뉴스

미국인, 생각보다 불륜에 엄격하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자들은 둘째 또는 셋째 부인을 두기보다 바람을 피운다. 미국인은 결혼생활에서 사랑이 식은 것을 한탄하지만 일본인은 대가를 지불하면 옛 배우자와의 색스는 불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웨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 파멜라 드러커먼이 간통에 대한 각국의 관습을 비교한 신저 “정육 번역-도쿄에서 테네시까지 간통의 규칙”에서 소개한 몰래 바람피우는 문화적 구실의 일부다.

프랑스인은 영화와 책에서 부정된 성 관계를 예외적으로 그리는데는 1등이지만 기혼남성의 3.8%, 여성은 2%만이 불륜을 시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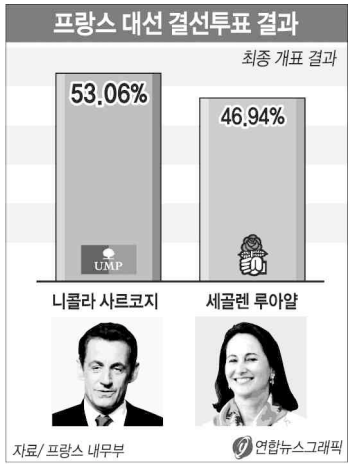
미국인은 이보다 약간 많은 기혼남성의 3.9%, 여성의 3.1%가 외도를 시인했지만 미국인 간부(姦夫)들은 정사에 대해 자신을 훨씬 더 자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미국인은 사생활 출산에서부터 이혼과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는 모든 성적문제에 관해 더 관용적이고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지만 간통만은 예외이며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통을 죄악시하는 정도를 보면 더 두드러진다. 미국인은 약 6%가 어떤 경우든 모든 경우 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반면 러시아인은 근 40%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뉴욕라이터=연합뉴스

달변·추진력 탁월한 헝가리 이민 2세

■ **사르코지는 누구**



“헝가리 이민자 아들 출신의 정치 ‘이단아’에서 엘리제궁 주인으로.”

6일 대선에서 승리해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는 2002년 내무장관 취임 뒤 강력한 치안정책, 특유의 달변과 카리스마로 지지세를 넓히며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는 2차세계 대전 이후 공산 정권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한 헝가리 귀족 아버지와 그리스계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최초의 이민 2세 출신의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사르코지는 28세 때 파리 교외의 뇌이쉬르센의 시장으로 당선됐고, 1990년대 초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 내각에서 예산장관 등에 기용되며 급성장했다. 뇌이쉬르센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3년 5월엔 관내 유아원에 침입한 인질범을 설득해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대담함과 용기를 발휘했다.

처음엔 시라크 계파였지만 1995년 대선에서 발라뒤르를 지지해 시라크 계파에서 벗어났다. 사르코지는 시라크 계파의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며 시라크의 정치적 라이벌로 부상했다.

재혼한 그는 두번째 부인 세실리아와 결별의 위기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사르코지의 3자녀 중 막내는 세실리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파리=연합뉴스

大選 3연속 패배 佛 사회당 내분

프랑스 사회당이 3번째 연속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당내 분열상을 드러내며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2년째 집권중인 우파 정당의 집권 연장을 막지 못한 사회당의 패인 분석 움직임은 세를잡은 루아얄의 패배가 확실해지면 서부터 일기 시작했다.

루아얄은 그러나 결선에 진출하며, 2002년 보디는 나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2005년 유럽헌법 투표를 놓고 야기했던 당내 분열을 치유하는데 실패했다. /파리=연합뉴스

‘위안부 결의안’ 발의 혼다의원 “美 의회, 처리 공감대 형성”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은 논란을 빚고 있는 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내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혼다 의원은 “일본계인 내가 일 제국주의가 2차대전 당시 저지른 범죄행위인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해 (일본이)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혼다 의원은 또 “미 의회에서의 위안부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한·일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그래서 한국 정부측에도 이번 결의안 처리와 관련해 특별한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추락 케냐 여객기 잔해 발견 한국인 1명 등 탑승객 전원 사망

지난 5일 카메룬에서 추락한 케냐 여객기 탑승자들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이 7일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락 여객기 수색과 구조를 위한 정부 특별팀의 일원인 장-피에르 나나는 “발견된 여객기 동체가 거의 모두 불지뎠에 잠겨 있어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현지 국영 라디오도 이날 “탑승자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생존자가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인 김모 씨 등 승객과 승무원 114명을 태운 케냐항공 소속 737-800 여객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55분께 카메룬 두알라공항에서 이륙한 뒤 곧 실종됐으며 6일 밤 두알라에서 20km 떨어진 늪지대에서 동체가 발견됐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희소식 수료 합격과정

기장주부 실업자 자영업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선배 公務員들의 지혜로운 선택 역시「無等」이었습니다.=

7.9 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육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복지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	-----	-----	-----	-----	-----	-----	-----	-----	-----	-----	-----	-----

시험 안내 ■서울 지방직 : 7월 8일 시행 1723명 ■전남 : 6월 23일 161명
■전북 지방직 : 9월 8일 9급 행정직 131명 ■전남 : 행정직 후반기

※ 후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율이 ※

개강 : 매월 1日和 15日 주·야(휴일)반 모집

무등고시학원 (중앙초고 후문) 222-4560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이었다! www.hanbitgosi.co.kr

7급 공무원 올해부터 5만명증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국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완성) **서울시 맞춤형 문제풀이 (1개월완성)**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6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출/찍수만 매월 첫전도 개강)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형역 입구) 062)227-5355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리틀도쿄** 이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화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형역 입구) 062)228-1130

스파이더맨 파우레인서 유켄도 프린세스 슈가룬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